

春

2012년 봄호 통권 94호

보디 시즌버



(재)정토사관자재회

<http://jungtoh.com>



꺼져가는 생명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

한 생명 살림 등 제가 밝혀보겠습니다!!

그대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대의 눈물과 나의 눈물에 담긴 크나큰 아픔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대 생명의 가치와 나의 생명의 가치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픔을 모르는 채 할 수 없는 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능 행합장

“한 생명 살림 등 운동”에 당신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건강하게 삶을 살아내는 당신과 저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전화 한 통화”주시면 모연문을 보내드립니다.

- 문의 전화 : 080-255-8588 (수신자 부담)
- 담당자전화 : 052)255-8588
- 1등 : 5만원
- 계좌번호 : 농협 401120-51-017461
- 예 금 주 : 정토마을



※ 보디사트바Bodhisattva

보디Bodhi는 깨달음을 통해 윤회사슬을 벗고 열반에 이른 상태를 말하며
사트바Sattva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맑은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는 글	04	부처님 전 임진년(壬辰年) 기도 올립니다!	능 행
기획 특집	06	치유 · 완화의 꽃 활짝 피우리라	김윤희
선지식 초대	08	수불스님의 육조단경	이길수
능행스님의 꾸띠	10	능행스님과 함께하는 치유와 상담	편집부
수행도량	12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김경오
영어로 만나는 법화경	14		편집부
명상 카툰	15	보리심	용정운
특별한 초대	16	불교의 텃밭 일구는 시대의 장인(匠人) 방승인 김병조 거사	김윤희
아름다운 얼굴	18	정토마을의 터줏대감 무량심 부장	편집부
행복을 요리하는 의사	20	아직 찾아오지 않은 우리의 마지막을 찾아서	김여환
섬섬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22	밤하늘에 별이 된 스님	편집부
보디사트바 향기	25	선재회	백현진
스님들의 채공이야기	26	무 약자지	만 욱
만화로 만나는 트랙	28	여실관찰	최영순
말풀이	29	민선생의 십자말풀이	민대식
호스피스병동 정토마을이야기	30	갑봉씨	엄수현
아름다운 동행	32	60년 쥐들의세상	안미희
이야기가 있는 풍경	34	하나, 고운님과 마지막 포옹 한숙자	
	36	둘, 나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이었습니다. 성남옥	
정토마을관자재회 소식	38		
자제병원	40		
정토마을	41		
후원 안내	42		
CPE 교육 안내	43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안내	44		
후원엽서	45		

· 발행처 정토사관자재회 · 발행일 2012년 3월 8일 · 발행 · 편집인 능행 · 등록 울산바01004(2008.4.11.)
 · 기획위원 배성권 민대식 이길수 · 편집위원 남정 김경오 엄수현 안미희 백현진 · 사진 김종진 · 편집장 수필
 · 정토마을 총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17 / 전화 043)298-2258
 · 마하보디교육원 울산 울주군 상북면 거리로 323-27 / 전화 052)255-8520 / 팩스 052)264-0209
 · 디자인 편집 맑은소리 맑은나라 전화 051)255-0263 / 팩스 051)255-0953
 · 기획 아미울 전화 052)255-8520 / 팩스 052)264-0209 · 제작 정토사관자재회 | 비매품



부처님 전 임진년^{壬辰年} 기도 올립니다!

새해 벽두 21일 법화경 장좌기도로써 하얀 연꽃 피워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립니다.
자제병원 건립에 동참하는 모든 후원자와 봉사자 그리고 인연있는 모든 이들의 공덕되게 하소서.
이 기도 공덕을 온 법계에 회향합니다.

능행 | 정토마을 자제병원 이사장

고귀한 스승들께 부처님께, 그리고 부처님의 법과 영적인 수행자들에게 귀의합니다. 일체유정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갖게 되기를, 일체유정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멀어지기를, 일체유정이 고통없는 행복에 머물기를, 일체 유정이 멀거나 가까운 이들에 대한 미움도 집착도 없이 평등심 속에 머물기를...

모든 공덕을 다 지니시고 모든 중생의 소원을 다 들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

시작도 없는 아득한 옛날로부터 지은 모든 악업들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모두가 탐욕과 집착, 증오와 악심, 무지와 미혹으로 생겼고, 몸과 말과 마음 따라 지었음을 지금 이제 참회하오니, 저의 참회를 들으시고 모든 악업 소멸시켜 주옵시고 저의 진실하고 간곡한 이 참회에 감응하소서. 천만년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동굴도 햇빛이 드는 순간 그 어둠은 일순간에 없어지듯 아무리 오래된 무지의 장막도 깨달음의 지혜가 드러나는 즉시 사라지게 하소서. 죄와 마음은 본래 실재하지 않아 마음이 없으면 죄 또한 없어져 죄와 마음이 공하여지는 참회의 궁극을 이루게 하소서.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신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원컨대 저희로 하여금 당신과 같이 부처를 이루는 위없는 법을 하루속히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즉시 얻어 모든 중생들을 남김없이 불과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다 받아 소멸시키시는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일체 중생들이 선한 공덕을 지닐 수 있는 모든 방편의 지혜를 다 성취하여 어서 빨리 지혜의 배를 타고 생노병사로 이루어진 이 고통의 바다를 한 중생도 남김없이 하루속히 다 건너가도록 도울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이 세계의 중생들이 아무리 많다할지라도 지치는 마음없이 이 육신으로 남아 그들이 부처를 이루도록 도울 것이며, 모든 중생들이 부처를 이루도록 돕기 위해 저의 번뇌들을 완벽히 정복하도록 수행할 것이며, 일체 중생들을 돕기 위해 불과를 이루는 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해도 물러서지 않고 수행 정진할 것입니다. 일체 중생들이 해탈하여 불과를 이룰 때까지 삼보에 귀의하며 보리심을 성취하는 수행을 최상의 수행으로 삼고 수행하여 성취한 공덕은 일체 중생을 돕게 되는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오리다.

나무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卍



치유 · 완화의 꽃 활짝 피우리라

완화의료전문자제병원 4월 1일 상량식 준비 박차

김윤희 | 맑은소리맑은나라 발행인

1988년, 햇살 가득한 대지 위에 씨앗 하나가 발아되기 시작했다. 15명의 회원들이 오로지 봉사에 기치를 내걸고 물꼬를 튼 ‘자비회’가 그것이었다.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하고 병마와 싸우는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한 작은 출발이었다.

밝고 건강한 삶, 그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비의 봉사자들은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으며 단체를 살 썩웠고 그들의 노력이 모여 2012년 현재 1만 5천 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정토사관자재회가 우뚝 선 것이다.

정토사관자재회는 수행과 돌봄이 하나 되는 공동체이다. 자제병원과 마하보디교육원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 임상보디아트바 교육센터 ·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등 정토사관자재회 산하의 기관은 그렇듯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며 세상의 그늘진 곳에 빛을 밝히고 있다. 그 가운데 단연, 으뜸의 사업은 자제병원이다. 완화의료전문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원을 하게 될 자제병원은 2003년 건립을 계획하고 2005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에 부지를 마련, 2011년 4월

10일 착공을 해 지금은 5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다.

생명존중, 자비실천, 의식성장을 실천덕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토사관자재회가 자제병원을 건립하는 데는 바로 조건 없는 나눔을 실천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우들에게 실로 자비 보시행을 실천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이 순간에도 신축병원의 개원을 기다리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후원을 아끼지 않는 수 많은 후원자님께서서는 병동의 완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병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피 나는 노력은 능행스님의 보궁 기도와 전국 각지의 어른 스님들의 후원과 염려, 인연 닿는 곳마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가능했다. 그리하여 마하보디교육원 내의 식구들은 천일기도와 범화경 21일 장좌기도 등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의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는 주야로 끊이질 않았다.

그런가하면, 2007년 인도 다람살라를 찾아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했을 때의 감동의 덕담은 막중한 책임의식과 함께 진정 가치 있는 대작불사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수불스님(안국선원장, 불교신문사장)을 모시고 착공식을 봉행했는데 3천 여 불자들이 참석해 자제병원의 앞날을 기대와 희망으로 지켜봐 주었다.

이제 지난해의 착공식 이후 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자제병원의 건립현황은 기본 골조를 끝낸 상태이며 지하층과 지상 2층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오는 4월 1일이면 상량식을 봉행하게 된다.

상량식 당일에도 수불스님께서 참석하여 귀중한 범문을 들려주실 계획이며 그밖에 덕망있는 대덕 스님들이 참석하여 자제병원의 건립에 힘을 보태 주실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연말이면 자제병원은 명실공히 완화의료전문병원으로 특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스템을 선보이며 치유, 완화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卍



수불스님의 육조단경

육조단경 법문을 신도록 허락해 주신 큰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길수

□ 선지식아! 내가 흥인 화상회하에서 한번 듣고 언하에 문득 깨달아

금강경을 읽어주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그 말에 홀연히 계합했어요. 그전에 어떤 거사가 금강경 읽는데서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마음이 열렸는데, 또 오조 흥인스님이 금강경을 설명하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데서 그냥 홀연히 또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뭘까?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면 뭘해. 그 말만 배우고 이해하고 됐다 하고 자꾸 남한테 써먹을 건데, 우

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그 당처를 찾아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직접 증득해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 문득 직하에 진여본성을 보았으니

언제든지 보고 있는 것이 진여본성이 아닌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깨닫지 못하고 봤기 때문에 어리석음에 휩쓸렸었는데 인연 따라 깨닫고 보니 진여본성 아닌 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한 번 보고 난 뒤에는 다시 못 보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한 번 화두를 타파하고 난 뒤에는 다시 화두를 잡는 일도 없고 화두를 떠

나서 따로 공부하는 법을 쓴 일도 없다 이 말입니다. 늘 화두 속에서 이 마음을 쓰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베풀고 공덕을 지었지 또 다른 모습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부라 하면 능히 그렇게 해야지 또 다른 공부의 모습이 없거늘, 이미 한 번 보고 알았는데, 또 다른 무엇이 있다고 착각하고 자꾸 험매고 허망한 모습을 쓴다 전에 알았던 것이 잘못 알았던 것이든지 아니면 확철하게 깨닫지 못해서 이 마음이 스스로 의혹을 내고, 어리석은 데 또 떨어져서 이중삼중의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승당해서 화두를 의심해 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네가 직접 체험해서 온몸으로 밝혔거들랑 눈앞에 화두를 잡을 필요도 없고 내려놓을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와 함께 24시간 365일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알았으면 놓아라 말아라 하는 것도 어리석은 말입니다.

아는 사람한테는 그만 쓰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늘상 부처님 말씀이 “착한 마음 쓰라. 악한 마음 쓰지 마라. 이 마음 밝히기만 하면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 마음을 그

렇게 쓰다보면 자기도 이익 되고 남도 이익 되게 해 줄 수 있는 바탕이 그 속에 다 열려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게 안 되냐? 그건 단 하나, 마음을 열었느냐 열지 못했느냐, 열고 이치를 살피느냐, 열지 못하고 알음알이로써 살피진 이치를 이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냐 이게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 **그러므로 이 교법을 널리 펴 내려가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보리를 단번에 깨닫도록 하여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고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하느니라.**

마하반야바라밀법을 베풀어 ‘네가 바로 부처고 네가 바로 그 견성법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고, 이치로도 실지로 직하에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했다 이 말이요.

□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든 모름지기 최상승법을 아는 선지식을 찾아서 그렇게 했는데도 못 깨닫거든 아는 대선지식을 찾아 떠나라는 말입니다. 卍**

(수불스님의 육조단경 강의는 1년동안 연재 될 예정이며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능행스님과 함께 하는 치유와 상담



편집부

• 능행스님의 꾸띠 (<http://www.nhbkt.com/>)
(꾸띠는 '토굴' 의 산스크리트어)

Q 스님. 통증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진통제에 자꾸 의지하는 제 자신이 있습니다. 진통제의 양이 조금씩 느는 것처럼 마음의 두려움도 함께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그래도 오늘은 밥을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A 소염제와 진통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씩 줄여가면서 자신의 몸과 대화를 하세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나 미안하다고... 온갖 독한 약을 마구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잠도 밥도 설치는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몸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몸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영육간의 고통이 안개 걷히듯 사라지게 하소서. 나의 붓다여! 나의 몸 당신을 진정 사랑합니다." 수시로 자신의 몸에게 속삭여 보세요. 그나마 밥을 먹을 수 있었다니 정말 환희롭고 감사한 일입니다.

Q 스님. 머리카락이... 그것이 가장 속상해요. 몸의 아픔만큼 아니, 그보다 더 머리카락 없는 것이 더 속상한 것 같아요. 우습죠? 아프면서도 모양에 신경이 가는 것이요. 하지만 또 몸이 아파지면 머리카락에 대한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몸의 고통만 보여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가족들에게 이런 고통을 보이는 것이예요.

A 머리는 시간이 지나고 건강해지면 다시 길러서 아름답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짧은 컷트머리의 새로운 이미지 변신, 아마도 새로운 기운을 뚝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로우며 지칠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고통 중에 주변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통증이 심할 때 고요히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는 통증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지겹다, 싫다 이렇다, 저렇다 생각을 붙이지 말고 그냥 무심히 앉아서

일어나는 그 통증을 가만히 바라봐 보실래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들쭉을 바라보며 들쭉의 생김새를 관찰하듯...

어떤 분은 유방암이 걸려서 너무나 통증이 심하고 전신으로 전이가 되어 병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을 죽을힘을 다해서 참숯가마에 가서 쉬어가며 고온의 뜨거운 열기로 잠깐 잠깐 몸에 찌든 고통의 찌꺼기들을 밖으로 배출하기 시작했대요. 약 5일 지나니까 조금씩 그 통증이 줄어들더랍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정을 계속했는데, 보름 지나니까 아래로 냉증이 흘러내리면서 온몸에서 악취가 나고 물질이 생기고 하더래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약 5일 더 하니까 물질도 사라지고 냉도 없어지면서 몸이 가볍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항암제 다 끝내시고 시골마을에서 몸을 돌보며 살고 있어요. 지긋지긋한 괴로움도 사라지구요. 통증에는 열치료가 참 효능이 있어요.

Q 저희 아버님을 불교호스피스 시설에 모시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천주교의 병원에 계시면서 세례를 받으셨게 되었습니다. 병중에 계신 분께 개종 아닌 개종을 해드리게 해서 죄송하고 불효를 드린 듯하여 괴롭습니다. 정토마을로 모시고 싶고요. 임종 전까지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불교집안에 말기암환자 한 분 편히 모실 병원하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죄인 같은 마음입니다. 빨리 병원을 지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세례까지 받게 하여 더욱더 송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을 정토마을에 모시세요. 간호사들과 스님들께서 틈틈이 기도해 드리고 임종준비 또한 함께 도와 가면서 할 수 있어 힘이 될 것입니다. '묘법연화경'을 염송하여 주시고 본문도 읽어 드리세요. 한량없는 공덕으로 정토에 왕생하실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Q 스님. 고통이 생겨나지 않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A 깨어있어야 합니다. 작용하지 않는 마음은 숲을 지나는 바람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마음이 일어나는 동시에 고통과 괴로움이 파도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냥 무심히 함이 없는 함으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야 움직임이 있어도 매사에 걸림이 없습니다. 즉,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卍

상담과 치유를 받으실 분은 네이버검색 창 : '능행스님의 꾸띠' 를 이용하세요!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김 경 오 |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간사

저는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의 제1기 졸업생이자 본교의 간사소임을 살고 있는 김경오입니다. 우리 대학원은 세상의 아픔을 향해 나아갈 심리치유사를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저는 우리 대학원을 자신의 거친 번뇌들을 수정하고 교정해가는 수행도량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참선방보다도 치열했던 지난 2년의 여정을 돌아보니 감개무량하기 그지없습니다.

2009년 3월,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의 첫 이름이던 마하보디 상담대학의 문이 열리고, 삼귀의를 시작으로 입학식을 하던 그 때, 조그마한 교실에 참으로 놀랍게도 남녀노소 · 승속이 하나되어 각자의 역사를 안고서 스무 명 남짓 입학동기 도반으로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상담^{相談}이란 대체 무엇이지?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인가? 학교의 이름은 어째서 마하보디이지? 대보살이 되지는 것인가?” 뜻내기 학생에겐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스님 학생부터 박사 학생, 기술자 학생, 할머니 학생, 아가씨 학생, 선생 학생, 주부 학생. 각자 명함 앞뒤 면을 거뜬히 채울 법한 역할이 있음에도, 마치 그림판을 완성 시킬 소중한 퍼즐 한 조각을 찾으러 길을 나선 이

처럼 어색한 낮가림 속에서도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 마하보디의 문 안으로 두려운 가슴을 조심히 열고 들어온 저희들이었습니다.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없는 16주의 뻑뻑한 시간표, 주중을 위해 심신을 편히 쉬게 한다는 황금같은 주말에 온 종일 하는 수업. 주중에 못 다한 약속과 관계들을 다 제쳐놓고 뭐 대단한 걸 배우러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툭툭 거리기도 했습니다.

갓 문을 연 작은 학교, 시간이 갈수록 심기를 건드리는 불편한 수업들, 어렵다는 프로그래밍과 융을 거슬러 올라가니 이미 붓다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고, 마하보디 학생들 앞에 서신 교수님들은 그야말로 관세음보살 이시다가 사대천왕이시다가 하시니, 혼쫓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수업 속에서 한탄도 눈물도 많이들 쏟아냈습니다.

무디고 탁해진 삶의 느낌들이 겨우내 땅속에 묻혀있는 보리 싹 같이 답답함과 무거움으로 고개를 들어 올리지 못할 때, 힘껏 사랑을 실어서 꺾꺾 조근조근 밟기를 해주어 스스로 일어남을 몸소 가르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뭘 배웠는지 시험도 한 번 보자 하지 않으셨지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뭉클하고 귀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절끔 나고 배시시 웃음이 나곤 했습니다. 이론 수업은 햇볕처럼 보편타당한 붓다의 가르침이 바로 진리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심지를 굳건히 해주는 바탕이 되게 하였고, 그에 따른 임상과 실습은 그대로 '바름을 행함'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익고, 익으면 익을수록 절로 고개를 숙이는 참 행동, 참 지식의 장.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은 그러한 교수님들에 의해 운영되고, 신실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우리학교를 키우고 기르고 물주는 일에 보탬을 주는 이 간사소임을 자원하였습니다. 우리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의 팀장(입승)스님께서 그러시는대요. 말하자면 제가 참선방의 부전소임이라고 말입니다.

모두를 위한 밝힘의 마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卍





There the Tathagata called Shakyamuni, is just now revealing to the Bodhisattvas Mahasattvas the Dharmaparyaya of the Lotus of the True Law, a Sutra of great extent, served to instruct Bodhisattvas, and was precious to all Buddhas.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석가모니시니라. 지금 여러 보살마하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니라.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아끼시는 것이니라.

『묘법연화경』 여래신력품 中

※영어 법화경 출처: 법화정사





불교의 텃밭 일구는 시대의 장인匠人, 방송인 김병조 거사

김 율 희 | 맑은소리맑은나라 발행인

따뜻하다. 정중하다. 그리고 불교적이다.

방송인이자, 대학 교수, 그리고 불교인으로 살아가는 김병조(63)씨를 소개하는 수식어다. 그는 8,90년대 우리나라 방송가의 최고 입담꾼이었으며 당대를 풍미했던 인기인이 분명했다. 유아프로그램의 호시였던 <뽀뽀뽀>라는 프로를 보며 자란 세대에게는 ‘뽀뽀이 아저씨’로, 공전의 히트를 쳤던 <일요일 일요일밤에>라는 프로를 즐기던 세대에게는 ‘배추머리’로 불리어지던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스타였다.

불자인 그를 처음 만났던 때는 2002년 무렵이었다. 사찰의 행사에 사회자로 무대에 오른 그는 불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대표 불자 연예인으로서 소명의식 또한 확고한 인물이었다. 그런 거사 김병조가 불교를 처음 만난 것은 열 살 때의 일이었다. 전남 장성의 자손 귀한 집안의 7대 종손으로

태어난 그에게 있어 생활은 곧 전통이었다.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가는게 제일의 원칙이며 최고의 규범이었다. 더욱이 고불총림 백양사가 위치한 장성이라는 땅에서 그는 어린 나이에 불교를 접하고 ‘큰절’을 식별할 줄 아는 혜안으로 백양사와 첫 인연을 맺는다. 그리하여 백양사는 어린 병조의 놀이터이자, 불교의 씨앗을 받아시킨 텃밭이 되었다.

불교식대로라면 인과 연의 이치에 맞게 그는 지금 불교라는 텃밭을 옥도로 일구고 있는 셈인데, 그 출발은 다름 아닌 1990년 불교방송의 개국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한 시대를 구가하던 인기인 김병조는 소위 정치바람을 타고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 방송인으로서의 삶을 접고 평소 다졌던 한학에 열중하게 되며 「명심보감」을 그 만큼 감칠맛 나게 번역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명심

보감」 등 한학 분야에 두각을 드러냈다. 그러니 대학 강단에서의 손짓이 쇠도했고, 결국 고향인 조선대에서 명심보감을 강의하는 교수로서 새로운 인생을 맞은 것이다.

바로 그즈음, 불교방송은 개국을 알렸고 그는 불교방송의 저녁시간대를 책임지는 진행자로 다시 방송을 시작하게 된다. 개국 이후〈다시 듣고 싶은 노래〉의 청취율은 나날이 높아갔고 그는 명실공히 불교방송인으로 두려움 없는 ‘도장」을 찍은 것이었다. 다시 만난 방송이 한 없이 좋았고 그도 불교방송인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 이는 올해로 22년째 장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만의 일상이 되어 있다. 그러니 행사가 있어 방송을 쉰다든가, 강의를 있어 방송을 핑크내는 일은 추호도 없다고.

누구에게나 계기가 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일, 혹은 크게 발심할 수 있는 기회 등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주 작은 일로도 가능해지며 누군가의 지나가는 말로도 일대 전환이 돼 주기도 한다. 어쩌면 불교인라는 이름으로 살되,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한 진정한 불자가 아니라 는 자가진단이 있을 때쯤 그는 승산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불교가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가르쳐준 스승이었고 쉬운 불교, 어렵지 않

은 불교를 알게 해준 스승이었다. 그러니 그가 회고하는 승산 스님에 대한 기억은 여간 각별한 것이 아니었다. 모름지기 불자 김병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기반이 스님으로부터 출발한 셈이다. 이후, 그는 바르고 정확한 불교를 더 아름답게 회향하는 법을 터득해 스스로 앉을자리, 설 자리를 구분할 줄 알며 게다가 어릴적부터 다져진 유교관은 예의를 갖춘 정중한 사람, 김병조로 그를 더 값지게 만들고 있었다.

김병조, 그는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전국 어디에서 불려도 한걸음에 달려간다. 그러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보탬을 주며 행사를 빛내 주고, 사정이 여의치 못한 사찰에는 교통비 정도의 보시금만 받고도 그날의 별이 돼 주기를 마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 마하보디교육원의 불사에도 그는 자신이 지닌 마음만큼의 염려와 성원을 보내 준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비록 돈은 보태지 못할지라도 나의 재능으로, 내가 지닌 불심으로 여러분들을 도와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자처한다.

환희장이라는 범명을 수지하고 살아가는 시대의 장인匠人. 그에게 어찌 예인藝人 이상의 평점을 주지 않을 수 있으랴. 卍

정토마을의 터줏대감 무량심 부장

편집부

정토마을에 오면 가장 먼저 합장하며 환한 미소로 ‘어서오세요’ 라고 맞아주는 분이 있다. 바로 정토마을의 터줏대감 무량심 김희자 부장이다. 김희자 부장은 정토마을의 전신인 지장 정사에서 능행스님과 함께 컵등을 만들어 호스피스병동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술한 바자회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정토마을을 세워 현재 호스피스 환자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금분투했던 제일의 공신이기도 하다.

중년의 나이에 정토마을에 입사해 어느덧 노년을 준비하는 회갑을 맞이하였다. 정토마을 자제병원 가족들의 회갑 감쪽이벤트에 소녀처럼 행복해하던 그녀였다.

그녀에게 언양 자제병원의 의미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자제병원 공사현장을 맴돌며 꼼꼼히 살피고 또 살피는 그녀의 눈빛에 감격과 기쁨, 그리고 염려 등 갖가지 표정들이 교차하는 듯 했다. 그녀의 기억 속으로 흐르고 있는 정토마을과의 인연을 그를 통해 다시 들었다.

1998년 어렵게 부지매입하고 차가운 초겨울 날씨에 물도 전기도 없는 산자락에서 컨테이너 한 대 끌어다 놓고 기도하시던 스님, 그런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함께 기도할 임무를 내지 못했던 자신의 철없음이 가장 후회된다”며 힘들었던 시기를 회상하며 운을 떼었다.

그럼에도 가장 환희로웠던 때를 묻자, 그녀는 서슴없이 첫 환자의 입소를 떠올리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조립식으로 대충 건물을 세웠지만 그래도 첫 입소하는 환자를 받을 때는 우리가 해냈다는 환희로움에 가슴이 떨렸죠.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답니다.” 그녀는 그 때를 회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가장 부끄러웠던 때는 언제였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얼굴을 들며 “환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어느 순간 정말 제 마음이 막막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이런 죽음, 저런 죽음, 또 죽음, 죽음들...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정말 뛰쳐나가서 생동감 넘치는 산 사람들과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능행스님과 어려워도 참고 묵묵히 견디는 정토식구들을 생각하니 그들을 두고 떠날 자신이 없더라. 아니, 정토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를 견딜 자신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제일 솔직한 표현이었다. “그래서 결심했죠. 여기서 행복을 찾고, 그리

고 이곳에 몸과 마음을 의지하는 환자들에게 내가 조그마한 힘이 되어 보자고요.”

무량심 보살은 자제병원의 공사현장에서 2층을 올리고 있는 인부들의 몸놀림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정토마을이 이제 자제병원으로 좀 더 큰 배를 갈아타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토마을과 인연되신 분들, 후원자분들에게 그저 머리숙여 감사할 뿐입니다.”

김희자 부장은 자제병원의 공사 현장을 벗어나 봉고차에 오르며 가슴 뿌듯한 듯 자제병원을 향해 깊이 합장했다. 그녀의 그 모습에는 숭고함이 흐르는 것 같다. 卍

아직 찾아오지 않은 우리의 마지막을 찾아서

김여환 |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센터

우리는 삶의 시작을 결정할 수도 없듯이, 마지막도 결정할 수 없다.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듯이, 죽음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처음과 끝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우리는 생명의 건전지가 얼마 남아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내일이 항상 보장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치열하게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죽어야 한다.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찌감치 마지막을 상상해야 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번은 온다. 그렇다면, 잘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배워야 한다. 그것은 살아 있는 모습으로 삼베옷을 입고 입관체험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죽음을 배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죽음은 직접 체험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음은 책으로 독학(獨學) 할 수 없고,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 배워야만 하는 과목이다.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

야 하는 운명인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때 비로소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 배울 수 있는 것이 죽음이다. 죽음은 참 배우기 어려운 인생수업이다.

죽음을 배우면, 죽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진다. 자신의 마지막과 깊숙이 접촉하게 되면 들쭉날쭉하던 삶이 일관성 있게 되고,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호스피스병동은 어쩌면 죽음의 폭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축제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있듯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있는 호스피스를 모르고 떠난다면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호스피스병동에 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마지막을 즐기면서 지내고 있는지 배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마지막과 접촉하게 된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먼저 떠난 사람이 우리에게 ‘죽음은 이런 거더라’ 라고 알려 줄 수 없다.

죽음을 배우기 위해 시간도 투자해야 하고, 마음도 투자해야 한다. 정이 든 환자

이별도 진하게 해보아야지만, 내가 떠난 뒤에 남아 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말을 남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뒤에 제대로 된 사전의료지시서나 유언장도 쓸 수가 있다. 자신의 마지막과 소통하는 혼자만의 고유한 경험을 하면, 진정한 삶의 용기가 생긴다. 자신의 마지막과 소통하게 되면, 그때부터 삶은 희망이 되고 새로워진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큰 사건을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의 5단계를 거치면서 받아들인다고 한다. 이것이 엘리사베스 퀴블러 로스의 죽음의 5단계이다. 시간이 흐르면 죽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마음도 육체와 함께 자연스럽게 수용의 단계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 만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다. 죽음을 가장 잘 수용하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또는 삶으로부터 죽음을 배운 사람이었다. 자식을 앞세웠거나, 장애인이었을 때 가장 잘 수용하는 것 같았다. 삶이 힘들었던 사람에게 죽음이 쉬운가보면 인생은 공평한가도 싶었다.

각 단계는 서로 엉키어 있기도 하고, 거꾸로 가기도 한다. 아직 죽음이 다가오지 않은 보호자도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면, 죽음의 5단계는 삶의 5단계와 근본적으로 같아 보인다. 우리는 죽음이 오기 직전까지도 5단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삶의 완성을 위해 살아간다. 이 글은 삶의 끝자락에

서 삶과 죽음의 5단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죽어가는 사람이 들려주는 영혼의 속삭임이다. 어쩌면 나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지막을 꾸밈없이 그저 읽어가고 있는 것이다. 卍



김 여 환 金女煥 · Kim Yoehwan

학 력

- 1994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2002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의학박사)
- 2004년 -2007년 2월 대구의료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
- 2008년 국립암센터 호스피스고위과정 수료

경 력

- 현 대구의료원 제 3가정외과과 과장
-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
- 2009년 국가암관리평가대회 호스피스 부문 복지부장관상 수여
- 2010년 호스피스 사진전 대상 -국립암센터 주최
- 2011년 호스피스 수필전 우수상 -국립암센터 주최
- 대구매일신문 「행복을 요리하는 의사」 컬럼 -호스피스와 항암식품이야기 연재 중
- 독자 사범

저 서

- 행복을 요리하는 의사,
- 죽기전에 더 늦기전에(3월 출간예정, 청림출판사)

이메일 : dodoyun@hanmail.net

자제병원을 소망하신 스님의 이야기



밤하늘에 별이 된 스님

편집부

무더운 어느 여름날, 호스피스 관계로 잘 알고 지내는 수녀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짐을 보면 스님 같은데 가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상태라면서 한 번 다녀가길 원했다.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나는 서울로 향했다.

수녀님의 안내로 잠시 작은 방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임상 자료를 브리핑 받고 호스피스 병실로 들어갔다. 날이 너무 더워 병실 공기가 탁하고 습했다. 창 옆 침상에는 뿐만 남은 남자분이 누워 있었는데, 수녀님이 저 분이라고 눈짓으로 말해주었다. 살포시 다가가 깡마른 손을 살며시 잡아드려도 환자는 눈도 뜨지 않았다. 느낌이 스님 같았다. 그래서 컷전에 대고 “스님!” 하고 불렀더니 그제야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셨다. 웬 비구니가 비구 손을 잡고 서 있으니 ‘누구? 하며

놀라면서도 반가운 눈빛이었다.

스님이라는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역장이 무너져 할 말을 잃어버렸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제멋대로 길어 엉망이고, 목욕은 언제 했는지 옷 속에 비늘이 뚝뚝 떨어지고, 손톱과 발톱은 길어 살을 파고들어갈 정도였다.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그 모습, 대명천지 밝은 하늘 아래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하나 막막한 심정이었다. 밖에 나가 속옷, 바리깡, 면도기, 수건 등을 사왔다. 휠체어로 모시고 간신히 병실 목욕탕에서 삭발 면도하고 깨끗한 새 속옷으로 갈아입혔더니 병원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타 종교 봉사자가 나를 찾아와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 저희는 스님인 줄도 모르고, 기독교인 천주교인 할 것 없이 찾아와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어드리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그렇게 해야 했으며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

나는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다. 다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 자리에 눕혀 놓고 바라보니 얼마나 거룩하고 맑으신지……. 옛말에 한 다리가 천리라고 그래도 부처님의 한 제자로, 비구니에게 당신 몸을 맡기시는 게 덜 서

클프고 덜 비참했으리라.

●스님! 제가 이제 곁에 있을 거예요. 아무 염려 마세요.

우리는 서로 마주 눕고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법랍法臘 24년 출가 이후 지금까지 선방에서만 정진하느라 토굴 하나 장만하지 못한 구도자였다. 지난 겨울 결제結制때 자주 잔기침이 나서 해제하면 병원에 한 번 가봐야지 하다가 해제 후 주위에서 병원은 서울로 가야 한다고 해서 도반들이랑 함께 이곳을 왔는데 진찰 결과 폐암 말기로 진단이 나왔다고 했다.

●처음에는 도반 스님들이 해제비를 털어 입원했고, 도반들이 오가곤 했는데, 몸이 그저 그래서 모두 결제 들어가라고 했지. 그런데 이렇게 빨리 병이 깊어질 줄이야…….

올해 세속 나이가 47세. 속가에는 여동생 하나 달랑 살아 있어 가끔 왔다 가곤 했는데, 어렵게 살다 보니 요즘에는 통 못 온다고 말씀하셨다. 커다란 키에 빼만 남은 육체의 고통……. 숨이 가빠 온몸의 땀구멍마다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전신은 산소 부족으로 청색증이 와서 피부는 파랗게 죽어가고 물 한 모금 제대로 떠 넣어주는 이가 없어 혀는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다. 거즈에 물을 묻혀 입속에 넣어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나를 찾았다. 병원비 문제로 직원이 올라온 것이다.

● ‘450만 원인데 스님 병원비는 어디로 청구하면 되나요?’

대답이 퍼뜩 떠오르지 않았지만

● ‘걱정 마세요. 해결할 테니…….’

한 칸 토굴 형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

450만 원. 시간은 없고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할까? 생각나는 대로 전화를 돌렸다. 차마 스님 병원비가 없어 그런다는 사정 이야기는 체면상 빼놓고 일곱 군데 전화를 해서 돈을 마련했다. 그리고 착한 어느 보살님께 스님 떠날 때 입혀줄 수의 한 벌 값까지……. 이 모든 게 스님의 청정한 수행공덕이었으리라.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님. 왜 저 사람들이 와서 무례하게 굴면 나무라시지 가만히 계셨어요?

스님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서 말씀하셨다.

●우리나라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종교가 불교인데, 중이 지 죽을 자리 하나 없어 남의 병원에 와서, 그것도 이렇게 큰 십자가 아래 누워 죽는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겠노? 허! 허! 내가 이래 큰 십자가 아래서 죽어나갈 줄 우에 알았노? 내가 중이든 뭐 하겠노? 부끄러바서 눈도 뜰 수가 없었제.

스님의 부끄러운 마음이나 지금 내가 부끄러운 이 마음이나 같을까?

●스님! 제가 저 바람 열어봐도 되지요?

눈으로 그러라고 허락하셨다. 바람을 열어보니 가사, 장삼, 지갑, 승려증, 8만원, 통장(120만원 들어 있었음)이 스님의 생활을 반영하듯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스님! 그동안 살아오신 짐들은요?

내 물음에 고개를 흔든다. 20년 세월을 수행자로 살아온 마지막 모습이 이토록 비참할 수가……. 숨이 차서 좌불안석인 스님이 푹 꺼진 눈으로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붉은 눈 속에서 눈물을 토해내셨다. 닦아도 닦아도 흘러내리던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스님을 모시고 내 토굴로 내려오고 싶었지만 형편이 그러질 못해서 더욱 죄송스럽고 안쓰러웠다. 하필이면 그 병원 십자가가 유독 컸다. 게다가 스님 머리 바로 위에 걸려 있어 마음이 더욱 불편했으리라. 침대 위로 올라가 한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스님을 끌어안아 무릎에 누이고 작은 소리로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가는 혼자 남아…….

노래를 들려주었더니 힘없는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며,

●스님! 내 부탁 하나 들어주소, 꼭!

●네~ 말씀하세요.

●나는 이렇게 십자가 아래 누워 죽지만, 우리 시님들 늙거나 병들면 편히 죽을 수 있는 병원 하나 지어주소. 시님은 할 수 있어.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나는 너무 놀랐다.

●스님, 난 못해요. 내가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안 돼요! 스님! 병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자, 스님은 내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시며,

●원顛을 세워요, 부처님이 계시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도와줄게. 원만 세워! 원만 세우면 다 돼.

스님의 눈물이 내 승복 바지에 젖어들었다. 스님은 공부 중에 있는 도반들에게 자신이 죽더라도 알리지 말기를 당부하며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 후 뿌려주길 당부하셨다.

추적추적 장맛비가 내리던 오후 4시에 스님은 내 체온에 의지한 채 병든 육신을 여의고 그렇게 떠나셨다.

스님! 저 하늘에 뜬 저 별이 스님 아니신가요?

스님! 스님의 영전에 맑은 향 사투어 공양 올리오니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사바를 밝혀주소서!
나무아미타불. 卍



“
큰언니 같은 자비공덕회
그들에게는
보디사트바의 향기가 납니다.
”



무 왁자지

연호, 만옥스님

대부분 산 속에 위치한 절집의 겨울은 길기만 합니다.(이곳 마하보디 교육원의 칼바람 또한 보통이 아닙니다.^^)

“노스님, 예전에는 겨울철에 어떤 걸 해드셨나요?”

“옛날에 뭐 먹을기 있나? 가을무는 약이라 안하드나. 가을에 밭에서 뽑은 무시를 땅에 묻어가 겨울내내 국끼리고, 반찬해먹고 했지.”

그렇습니다. 예전에 먹을 것이 귀했던 절집에서는 가을철 수확한 무가 아주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원 후원에서도 중요한 재료로 쓰입니다. 사실 충청도 출신인 저는 출가해서야 ‘왁자지’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요, ‘왁자지’ 또는 ‘왁작’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이 이름만 들어서는 도무지 어떤 음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노스님께서 해주신 왁자지를 먹어보니 왁자지라는 것이 일종의 조림요리더군요. 노스님의 무 왁자지 예찬이 이어집니다.

“이 무 왁자지가 겨울에는 절집 밥도둑인기라. 추운 겨울 눈썰기 운력이라도 하면 뜨끈하고 얼큰한 무 왁자지로 대중 스님들 피로가 확 풀렸다. 요즘이야 사철내내 비닐하우스에서 과일이다, 채소다 다 키우니깐 무슨 먹을 것 걱정이 있겠노. 먹을 것 귀했던 옛날엔 그래서 무 왁자지가 더 맛있었던 기라.”

여기에서 노스님의 중요한 정보가 추가됩니다.



“와~ 다른 절집 음식은 깨끗하고 신선한 재료가 중요하제? 근데 왁자지는 양념이 많이 들어가서 오래된 무시나 바람든 무시, 못난이 무시도 맛있게 된데이~ 다싯물 우려낸 무시도 너무 무른게 아니면 왁자지해도 맛있데이~”

자~ 이제 겨울철 입맛을 돋우는 무 왁자지를 연호스님의 지도아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왁자지

재료 : 무, 표고버섯, 홍고추, 청양고추, 들기름, 간장

1. 무를 깨끗이 씻어서 썰다.(껍질을 벗기지 않습니다. 크게 썰어야 먹음직스러워요)
2. 표고버섯, 홍고추, 청양고추 등을 적당한 크기로 썰다.
3. 물, 간장, 고춧가루 등을 섞어서 양념장을 준비한다.(준비한 무가 잠길 정도의 양)
4. 팬을 불에 달군 후에 들기름을 붓고 무를 볶습니다.
5. 무에 기름이 베이고 익으면, 2번 재료와 3번의 양념장을 넣고 약 10분간 중간불에 그리고 약 30분간은 약한불에 놓고 졸입니다.(급한 마음에 저으면 무가 깨집니다. 짓지 마세요.)

Tip. 이 외에도 당근, 다시마, 생강, 대추, 물엿 등 집안 식구들의 입맛과 그때그때 냉장고에 있는 재료상황에 따라 추가해도 좋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든다면 재료가 좀 다르고, 순서가 달라도 아주 맛있는 무 왁자지가 될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무 왁자지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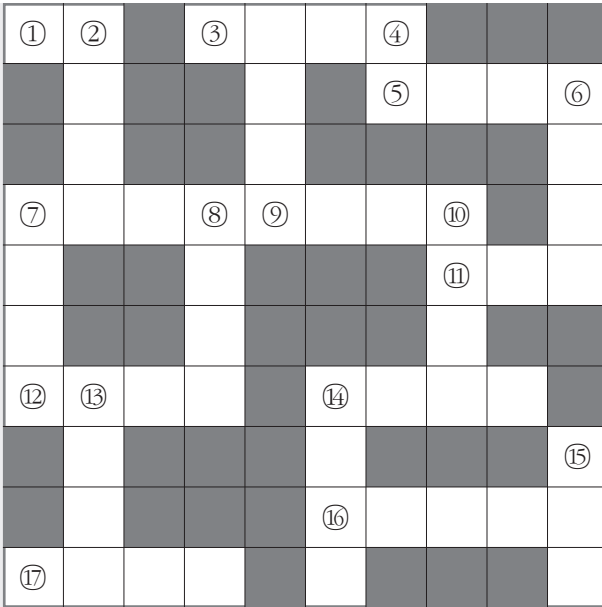
여실관찰

최영순 | 만화가



□ 최영순

강릉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소설을 공부했다. 철들기 전에는 학교 대신 강릉 남대천 하구의 역새밭에 누워 있거나 어 두껍컴한 싸구려 극장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고, 철든 후엔 '자비원'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길 잃은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한 시절을 보냈다. 1999년부터 본격적인 만화 작업을 시작했다. <불교신문> <스포츠타임스> <굿데이>를 비롯한 여러 신문과 <현대모터> 등 사보에 만화를 연재했다.



민선생의 십자말풀이

잡학과 시사,
그리고 불교용어도 배울 수 있는
퍼즐 재미있게 맞춰보세요.

가로 풀이

1. 깨달음을 구하여 중생을 교화하려는 사람, 보리살타의 준말.
3. 아홉 마리 소 가운데 한 개의 털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부분을 이르는 말
5.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
7. 지식과 인격이 함께 뛰어난 훌륭한 사람
9. 산은 높이 솟고 강은 길게 흐른다
11. 만 1세부터 6세까지의 시기.
12. 중국의 사대기서중 손오공이 나오는 소설.
14. 인물을 선택하는 표준으로 삼던 네 가지 조건. (신수, 말씨, 문필, 판단력)
16.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린 환자
17.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세로 풀이

2. 자신의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는 뜻
4. '창과 방패'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일치되지 아니함
6. 한국 상고사에 대한 책. '환단○○'라고도 한다
7.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는 뜻
8. 자신의 일생을 소재로 스스로 짓거나, 남에게 구술하여 쓰게 한 전기
10.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에는 지켜야 할 차례와 순서
13. 사물은 같은 무리끼리 따르고, 같은 사람은 서로 찾아 모인다는 뜻
14. 몸과 태어난 땅은 하나라는 뜻으로, 제 땅에서 산출된 것이라야 체질에 잘 맞는다는 말
15.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공신이며 시호가 문성공인 책사

가로정답

1. 보살(보살) ①, 2. 자살(자살) ②, 3. 아홉(아홉) ③, 4. 방패(방패) ④, 5. 입술(입술) ⑤, 6. 환단(환단) ⑥, 7. 동쪽(동쪽) ⑦, 8. 서쪽(서쪽) ⑧, 9. 산(산) ⑨, 10. 연장자(연장자) ⑩, 11. 만(만) ⑪, 12. 손오공(손오공) ⑫, 13. 사물(사물) ⑬, 14. 인(인) ⑭, 15. 몸(몸) ⑮, 16. 고치지(고치지) ⑯, 17. 처음부터(처음부터) ⑰

세로정답

1. 인(인) ①, 2. 자살(자살) ②, 3. 아홉(아홉) ③, 4. 방패(방패) ④, 5. 입술(입술) ⑤, 6. 환단(환단) ⑥, 7. 동쪽(동쪽) ⑦, 8. 서쪽(서쪽) ⑧, 9. 산(산) ⑨, 10. 연장자(연장자) ⑩, 11. 만(만) ⑪, 12. 손오공(손오공) ⑫, 13. 사물(사물) ⑬, 14. 인(인) ⑭, 15. 몸(몸) ⑮, 16. 고치지(고치지) ⑯, 17. 처음부터(처음부터) ⑰

갑봉씨

엄수현 | 정토마을 간호과장

그동안 제주도로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소풍도 다녀오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그때마다 즐거워하며 주인공이 되어 모두를 웃게 하던 갑봉씨는 만 2년 1개월을 같이하다 지난 7일 임종하였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이가 떠나가게 되면 가슴 위로 거센 회오리바람이 휩 지나가는 것 같다. 시간은 서로를 너무 익숙하게 한다. 종종 그가 환자인지 내가 간호사인지를 망각하기도 한다. 그냥 우리에게 그는 ‘갑봉씨’였다. 그와의 시간 중 여러 토막의 기억들이 강물되어 흘러간다.



처음 인상은 얼굴에 웃음이 많고, 또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없어 보여 안심이었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암환자이기에 ‘많이 아프면 어찌나, 또 대화가 안통하면 어찌나...’라는 걱정으로 긴장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갑봉씨는 생각보다 통증이 덜했고 그런대로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았다. 외출도 사무실 너머 밖으로 더 이상 나가

지를 않아 안심을 하던 어느 날이었다. 초파일 무렵이라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자신에게 신경을 덜 써주는 사이 갑봉씨가 가출을 시도하였다. 점심 전에 잔디밭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점심 챙기는 사이 잠깐의 틈을 타 빠져나가버린 것이다. 결국엔 직원들이 마을에 나가 헤매는 갑봉씨를 찾았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그저 “아니다.”만 반복하는 갑봉씨. 슈퍼에 같이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사세요.”해도 결국엔 고르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던 갑봉씨. 하루는 갑봉씨가 달력을 짚어가며 자장면을 외쳤다.

“자장면, 자장면...” “자장면 먹으러 갈까요?” 한마디에 얼굴 한가득 미소를 지으며 “네”하고는 뭐라고 할 사이도 없이 방으로 쏜살같이 달려 들어가 어느새 옷을 갈아입고 나와 보채는 것이 아닌가. 그날은 시간을 낼 수가 없어 그 다음 주의 한 날을 잡아주자 온통 자장면 삼매에 들어 매일같이 그날을 짚

어가며 기억하는 듯 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잊어버릴까봐 매일 출근하면 ‘자장면’을 외치며 달력을 짚어 주어 우리 모두를 재밌게 해주던 갑봉씨였다. 또 하루는 달력에 표를 해가며 “아부지 온다.” 혼잣말을 하는 것이었다. “아부지를 찾아 오시라고 할까요?” 했더니 황급히 “됐다.”라고 손사래를 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안쓰러운 마음에 따라 들어오는 나를 보며 갑봉씨는 얼른 “아프다.” 하며 머리를 가리키며 약을 먹는 시늉을 한다. 그러한 갑봉씨와의 생활이 벌써 2년이 되었던 것이다.

“과장! 과장!!”

더욱 거동이 어려워진 후 갑봉씨가 나를 부르는 소리이다. 모든 식구들의 호칭은 다 <누나>이지만 유독 나에게는 ‘과장’이라며 불러주고 있다.

“물 떠와라. 가득...”

손으로 짚어 가며 물을 떠오라고 한다.

“어지럽다. 어깨 수술해서 아프다.”

인상을 써가며 많이 아프다고 호소하고 마치 인상을 안 쓰면 안 믿어 주기라도 하는 듯이 얼굴 한 가득 인상을 쓴다.

“약 먹을까요?”

“네”

아주 반가운 듯 크게 대답하며 손가락으로

조금만 주면 된다고 한다. 많이 아프고 힘들 텐데도 그저 약 한 알 먹었다는 것에 위안을 삼는 듯 종일 아프다는 말없이 지내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안 된 마음이 든다.

“아픈 것은 좀 어때요?”

“약 먹었다.” 하며 손짓으로 나가라 한다.

수건을 몸이 말라서 베기는 부분에 깔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움이 올라왔다. 수건을 치우고 쿠션감이 좋은 매트를 겹으로 깔아주었다. 그런데 매트를 다 걷어 놓고 가져가라는 듯 손사래로 ‘됐다.’며 나가라 손짓한다.

“그래도 이게 더 좋을텐데... 이게 맘에 안 들어요?”

다른 거 가져 올까요?”

“아이참, 나가라.”

그저 쫓겨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사람에게는 편안한 모습이 참 다양하다. 자기에게 익숙함, 그것이 편안함인 것을 또 배우게 된다. 그렇게 2년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갑봉씨가 금생의 인연을 놓고 떠나갔다. 갑봉씨에게도 우리가 익숙했을 텐데...


정토마을 모든 이들과 봉사자 분들의 서운한 마음을 뒤로하고, 같이 있어 즐거웠고, 가슴 아팠고, 오래 기억에 남을 그를 이제 떠나 보내야 한다. 卍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 가득한 손길로
정토마을을 따뜻하게 가꾸어 주시는
든든한 울타리
60년 쥐들의 세상님들
언제나 그 자리에...



이야기가 있는 풍경

 **하나,** 고운님과 마지막 포옹 | 한숙자

 **둘,** 나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이었습니다. | 성남옥

보디사트바 글공모 안내

이야기가 있는 풍경에 글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대신 능행스님의 산문집 "섬섬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 : 후원자로서의 경험과 여정, 봉사자로서의 경험과 여정, 법화경기도를 통한 가피와 경험, 그 외 개인적인 임상경험 혹은 정토마을 자제병원과의 인연에 대한 에피소드 등)



고운 님과의 마지막 포옹

한숙자 | 후원자

나뭇잎이 예쁘게 물들어 갈 즈음에 또 한 사람과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40대 후반의 예쁜 호스피스 환자였다. 뇌종양으로 4년 전 두 번의 수술로 왼 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정신 장애까지 오고 말았던 그녀는 너무나 예뻐서 곁에 있기만 해도 내가 오히려 행복함을 느끼곤 했다.

단아하고 고운 말씨와 그 자태를 가는 그 날까지 잃지 않았던 그녀다. 지난 초겨울 무렵, 병마와 씨름했던 4년간의 악몽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찾게 된 것이다. 10개월 동안 나 하고의 만남도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엄마와 남편의 간절한 바람도 무너졌고 최고의 의료진과 의술도 소용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살려 보려고 전국으로 다니던 남편의 노력과 사랑도 무산되고 애타는 두 아들의 소원도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동안 많은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지만, 그녀의 죽음이 나에게 왠지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에게

많은 공부를 하게 해준 때문일까? ‘잘 살아야 잘 죽는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잘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은 그녀가 나에게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녀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고운 님’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녀에 대한 숭한 기억들이 물방울처럼 툭툭 튀어오른다. 그녀는 유난히도 비오는 것을 좋아하였기에 나는 그녀에게 ‘창 안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기도 하였다.

출근을 하면 그녀는 환한 웃음으로 “어서 오세요. 오늘 푸른색이 참 예뻐요.” 또 때론 “봄의 향기와 여사님의 그린색 블라우스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라고 말하며 나를 기분을 좋게 하였다.

어느 날은 햇볕이 너무 따스해 휠체어에 몸을 싣고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여사님, 우리 그만 집에 가요. 이렇게 예쁜 두 여자를 누군가 데려가면 어떻게 한대요.”라고 말해 미소를 머금게 하기

도 하였다. 기저귀를 갈아도 “여사님, 미안해요. 아름다운 여사님께 똥을 치게 해서...” 라고 하여 나의 피로감을 싹 가시게 하는 말을 건네던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다.

과다한 수액으로 하룻밤에 열 번 넘게 소변을 봐도 예뻐다. 70킬로그램의 몸을 화장실로, 재활실로 옮겼을 때가 누워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했던 것 같다. 어떤 때는 둘 다 밤을 하얗게 지세우고도 능청스럽게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고운 말투가 예뻐다.

이런 고운 그녀가 들이마신 숨을 내뿔지 않았다 하여 이승과 저승이 다르다니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다. 큰스님께서 삶과 죽음이 ‘호흡지간’ 이라 하신 말씀이 실감났다. 고운님은 나에게 죽음이란 숙제를 남겨 놓고 그렇게 홀연히 떠나고 말았다.

‘잘 가세요. 그리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계셔야 해요.’ 눈물로 마지막 포옹을 하고 보내드렸다.

가신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아직도 가슴이 저러온다. 호스피스 교육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이다. 능행스님께서 “무엇을 하였느냐?” 고 물으실 때 난 아무 말씀도 못드렸다. 정말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서 미안함만 가득했다.

49세 제사 때마다 비가 왔었는데, 회향 때는 너무나 화창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다. 여자로서의 삶을 잘 보낸 것 같은 그 모습에 찬사를 보내며 나에게 주고 간 끈끈한 정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천년을 지나야 다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는데... 그 때쯤이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예쁜 당신, 고운 당신, 그동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간 사람... 고마웠어요.’ 卍



나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이었습니다.

성남옥 | 34기 호스피스수료생



◀ 좌측 맨 위가 글쓴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은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겐 당연한 하루하루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몹시도 힘겹고 버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지스님께 마하보디교육원을 소개받고 곧바로 달려가 신청서를 쓴 것은 교육이 시작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전업주부로서는 약간 부담되는 비용이었지만, 일정이 시작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이 알알이 정성들여 준비하신 식탁을 보며 ‘나는 환영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을 연상케 하는 공양간은 그야말로 사랑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모든 일정 하나하나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체험이었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누구를 위하여...”라는 애초의 나의 생각이 얼마나 커다란 착각이고 오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게 되었고 평생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상처를

능행스님께 말씀드리며 스님의 커다란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마스터스님의 “당신에게는 누가 촛불 같은 존재입니까?”라는 질문에 남편을 떠올렸고, ‘당신은 나에게 촛불과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문자 한통이 퐁퐁 얼어붙었던 남편과의 관계를 녹여 주었습니다.

스님께서 선창하시는 미타송을 따라 부르며 내 안에서 피어나는 연꽃송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가득 환희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은 그동안 나의 삶이 그다지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 아프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하고 가슴깊이 묻어 두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애통해하고, 수없이 죽으려고 시도했던 나의 삶을 비로소 고마워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겪으면서도 물들지 않고, 당당하게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 있는 나를 인식하는 순간, 내 자신이 그렇게 기특하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도 또한 자신이 견딜 수 있는 무게만큼의 아픔을 견디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잠깐 만난 인연이었지만, 마치 평생을 함께 한 동기들처럼 서로 다독이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마치던 날, 내 자신을 치유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각자의 고정관념 속에서 맹인맹지盲人盲知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정견正見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양성 안에서 차이를 차이로 보지 않고 차별로 보는 것이 <폭력>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최봉수 교수님의 열광적인 강의를 통하여 <마음>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아픔을 숨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 역시 혼자 안고 힘들어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의 만남은 것처럼 단단했던 껍질을 깨 주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 있었고 당신은 아프고 나는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어느덧 마음으로 간절히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6박 7일이었지만 그것은 우리 삶에 커다란 획을 그어준 전환점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능행스님과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반님들!

사랑합니다. 능행스님! 卍

Bodhisattva



1 CPE 수료식 (12월 4일)

12월 4일 마하보디교육원 대법당에서 승려 및 재가자 총 8명으로 구성되었던 CPE가을학기 10기의 수료식이 있었다. 총 8명의 그룹원들은 선배들의 축하를 받으며 빛나는 수료장을 받는 영광스런 자리를 가졌다.



2 CPE 가장무도회 총망년회 (12월 17일)

12월 17일 1기에서 10기의 수료생들이 함께 모여 가장무도회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선후배의 친목을 다지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3 정토사관자재회 종무식 (12월 30일)

12월 30일 정토마을과 마하보디교육원 그리고 자제병원을 아우르는 정토사 관자재회는 임직원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2011년을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통해 재가자와 승가 그리고 임직원들이 단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법화경 철야기도 (12월 24일)

12월 24일과 25일, 법화경 철야기도 후 모든 기도 동참자들은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법화경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된 가피와 더불어 각자의 기도 여정에 대해 진솔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한해를 마무리 하였다.



5 정토사관자재회 시무식 (2012년 1월 2일)

2012년 1월 2일 정토사 관자재회 모든 가족들은 시무식을 통해 2012년의 대사업인 자제병원 건립의 목표와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고 목적달성을 위해 힘찬 걸음을 땀 것을 다짐하였다.



정/토/마/을/관/자/재/회/소/식

Bodhisattva

⑥ 34기 호스피스교육 (1월 8일~14일)

2012년 1월 8일부터 14일까지 6박 7일간의 34기 호스피스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 교육에는 전국에서 온 100여명의 선배님들이 함께하여 '돌봄과 치유' 로써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현장의 교육이 되었다.



⑦ 21일 법화경 장좌기도 (1월 25일 ~ 2월15일)

2012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대중스님 11명이 십없이 21일간 법화경 장좌기도를 통해 자제병원의 불사 원만 성취와 더불어 국민안, 세계평화, 우주의 평온을 위한 기도를 봉행하였다. 이 기도는 올해로써 세번째 봉행한 장좌기도이다.



⑧ 호스피스 운영진 마스터 워크샵 (2월 18일~19일)

1박 2일간의 운영진 마스터 워크샵이 18, 19일 양일간 경주대명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이 워크샵을 통해 호스피스 교육이 내적, 외적으로 성숙되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마음공부와 회의가 병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회의가 진행되었다.



⑨ 자제병원 상량대법회 모연 및 홍보 (2월 19일)

정토사 관자재회의 임직원과 후원자 봉사자들 20여명이 부산 KBS홀에서 열린 '진제큰스님 종정축하법회'에 참석하여 4월 1일 예정된 상량대법회를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소재
- 건축면적 : 지하 1층, 지상 2층 3,306㎡ (1,000평)
- 병 상 수 : 108병상
- 주요서비스 : 호스피스, 완화의료, 재활, 외래, 가정간호, 의료봉사 등

완화의료전문

자제慈濟병원

자제병원은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들의 희망입니다!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들에게 전문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자제병원은 죽음을 통한 삶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품위 있고 존엄한 삶에 대한 학습은 물론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돌봄과 지지를 제공하여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함께 베푸는 나눔!

전문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민들을 위한 종합의료복지타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자제병원은 한분 한 분의 소중한 참여로 건립됩니다.

건/립/후/원/계/좌

능 협 401131-51-075952 국민은행 713701-01-140932 (예금주 :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 KTX 울산역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소요시간 약 10분)

자제병원 건립 사무국

689-8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거리로 323-27 Tel : 052)255-8588, 2341 Fax : 052)254-2347

http://jungtoh.com E-Mail : jungtoh@cpebud.com



불교계 최초의 독립형 호스피스인 정토마을은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자비 실천의 사랑으로 성심을 다하는
간호와 지지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동행... 정토마을이 함께합니다!

소리없이 외치는 병든 생명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우의 통증관리와 영적지지, 다양한 Case 연구를
통해 정토마을은 21세기 발전된 호스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복잡한 절차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 상 : 말기암 또는 이에 준하는 말기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
- 운 영 : 24시간 전인적 돌봄 제공

상담(전화, 방문, 인터넷) → 입소심사 → 입소통보 및 입소

정토마을호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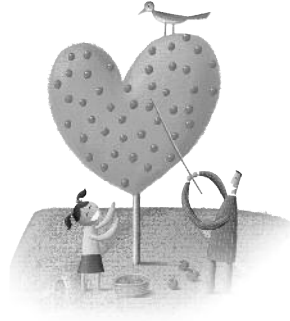
363-871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Tel : 043)298-2258/ Fax : 043)298-1457 <http://jungtoh.com> hospice@cpebud.com

후원참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작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후원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인연은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고통 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정도마음은 물론, 병들고 가난하여 고통 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줄 시설의 건립과 운영에도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빠르고 간편하게 후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후원방법 : 자동이체(CMS), 무통장입금, 지로입금, 물품후원, 복돼지 분양
- 후원접수 : 전화, 홈페이지, 방문
- 후원계좌 : 농협 401120-51-016794
국민은행 713701-01-001909 예금주)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 자동이체(CMS) 후원신청을 하시면 전화 한 통으로 신청, 변경, 해지가 가능하며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후원금을 납부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당신의 고귀한 기부금은

- I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의 기금으로
- II 불치병 환자를 비롯한 특히, 암환자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 III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사업 기금으로 쓰입니다.

재단정토사관자재회

363-871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Tel : 043)298-2258(代) Fax : 043)298-1457 http://jungtoh.com jungtoh@cpebud.com



“진정한 마음돌봄 전문가로 탄생되는 CPE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 교육 일정 안내

- 과 정 : 봄학기(3월~6월), 여름학기(6월~8월) 가을학기(9월~12월)
- 기 간 : 16주간
- 일 정 : 봄·가을학기: 매주 일요일 / 여름학기: 토·일요일
- 시 간 : 오전10시 ~ 오후 5시 30분
- 인 원 : 8명 (정원)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란?

삶의 위기에 직면한 이들을 위하여 마음돌봄을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마음돌봄이란?

마음의 고통중에 있는 이들이 자기 스스로 심신의 건강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돌봄서비스입니다.



마음돌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삶의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돌봄의 대상입니다.(예:환자, 보호자, 사별자, 중독자, 재소자, 이주민, 행려자,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에서든 전문적인 마음돌봄이 요구됩니다.(예:병원, 학교, 군대, 교도소, 경찰서, 가정, 직장, 상담소,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교육 후에 얻게 되는 것은?

가장 큰 결실은 영적돌봄가로서의 자신의 역량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예: 리더십, 자기돌봄능력, 대인관계 기술, 상담기법 등). 또한 학생은 교육후에도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전문적인 영적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CPE의 여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정토마을 언양 마하보디센터 임상보디사트바교육(CPE)

울산 울주군 상북면 거리로 323-27 마하보디교육원 3층 CPE센터

Tel : 052 255 8520 · 052 255 8021 · <http://jungtoh.com>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입/학생/모/집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은 심리치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대학입니다. 불교의 기본교리와 수행방법, 상담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명상을 통한 심리치유방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합니다. 특히 임상과 실습을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심리치유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성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목표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임상과 치유를 중심으로 한 전문 상담 지도자를 양성하고 사회 곳곳에 고동받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돌봄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 불교의 교학과 현대심리학을 통합하는 불교심리학 이론의 체계화
- 명상수행과 심리상담의 접목을 통한 전문 명상심리 치유사 양성
-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수행과 교육을 통한 자아발견

» 입학안내

1 지원자격

- ① 지도자과정
 - 학사학위를 미취득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석사과정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교육연한 및 시간

- 지도자과정은 4학기, 석사과정 5학기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20분

3 학위 및 자격증 취득

- 지도자과정 이수 시 본 대학원의 졸업증명서와 명상심리치유사 자격증 취득
- 위덕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위덕대학교지도자과정 수료증 취득
- 위덕대학교와 교육협정에 의거한 석사학위 취득

4 전형일정 · 제출서류와 입시상담 문의

- 수시상담을 통해 입학 안내
- 전형서류 제출기간 : 12월 1일~12월 31일
- 전화 : 행정실 (052)264-0180, 행정실장 (손전화)010-2693-8639
- 홈페이지 : <http://www.mahacounseling.com>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이사장



6 8 9 - 8 2 3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자재유지관리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로 138-1번지
Tel: 02-254-2340 http://jungtoah.com



문의 극림



문의 극하

이 문 2 5 8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병들어 고통받고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한 이들을 위해
정토마을은 부처님의 자비에 바탕을 두고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PALLIATIVE CARE 완화의료

정토마을 호스피스

모내주시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소득양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 법인사무과)

신정인 : 김영년

본인은 재법인 정토사관자재회(정토마을) 후원회비 단부를 위한 자동이체 출금신청에 동의합니다.

이체일(선택)	5일 () 15일 () 20일 () 25일 ()
유정액	만원 ※ (1회좌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예금주)
연락처	후대전화
주소	
성명	소속단체

사랑으로 주신 행복의 열매, 다시 나눔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밝은 행복으로 전달됩니다.

후원신청서

점선선을 따라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러의 후원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시고 점선선을 따라 접어서 후원회에 봉투를 하여서 우표를 붙여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총 합 401131-51-080245 052-254-2340
 국민은행 713701-01-001909 043-298-2258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080-255-8588(수신자부담)

나눔후원계좌안내
건립후원 및 문의

여러분들께서 전해주시는 조건없는 사랑기금은 전액 병들어서외된 우리 이웃들을 위한 시설투자 및 건립에 쓰여집니다.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기본과정 3기

(불교임종의식)

프로그램

첫째날
(4/24, 화)

- 임상과 수행의 만남 (능행)
- 불교 호스피스의 역사와 의미
- 임상에서 치유와 돌봄의 필요성 과 전문성 (능행)

둘째날
(4/25, 수)

- 암 예방과 완화의료
- 대체의학
- 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 임상전문 대화기법

셋째날
(4/26, 목)

- 죽어감에 대한 임상이론 및 사례 (능행)
- 불교 임상 기도와 임종의식, 1 (능행)
- 말기증상 간호 및 기본간호와 의료기구사용법

넷째날
(4/27, 금)

- 불교임상기도와 임종의식, 2 (능행)
- 불교임종의식, 3 (능행)

교육 안내

기 간

2012. 4. 24 (화) ~ 4. 27 (금)
(3박 4일, 32시간)

**접 수
마 감**

서 류 접 수 : 2012년 4월 10일(화) 까지
교육비 입금 : 2012년 4월 13일(금) 까지

인 원

34명 정원 (선착순 마감)

장 소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
※ KTX 울산역에서 15분 거리

대 상

-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
- 2012년 현재 종단 등록사찰 주지스님
- 승납 30년 이상인 스님은 연수교육 의무 대상자가 아니지만, 필요한 강좌 자유롭게 수강가능

교육비

35 만원
(국민 : 713701-01-140961 / 정토사관자재회)
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 5 만원 할인
아미타호스피스 수료스님

준 비 물

가사장삼, 세면도구, 필기구, 개인 컵, 승려증 등

**제 출
서 류**

교육지원서, 증명사진 2매, 승려증 사본

**문 의
신 청**

마하보디교육원
대표전화 : 052-255-8521, 직통 : 052-255-8522
Fax, 052-264-0209



정토마을공동체 마하보디교육원



정토마을이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세상!
그 속엔 사람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자제병원 상량대법회

자제병원을 상량上梁하오며

자비, 생명존중, 사랑실천으로
조건 없는 나눔을 실현하여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앓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온
정토마을은
수행과 돌봄이 하나 된 행복공동체로 출발한 처음의 마음으로
기부자들의 조건 없는 후원의 뜻을 모아 온,
간월산자락에 자제병원 건립의 첫 삽을 뜬 이래
이제 정토마을 후원자들의 소중한 뜻과 함께 상량上梁하오니
합장하면서 모시고자 합니다.

정토마을 자제병원 이사장 능행 합장

- ▶일시 : 불기 2556년 4월 1일(음3.11) 오전 10시 20분~3시 30분
-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거리로 323-27 자제병원



수행과 돌봄이 하나 된 행복공동체 정토마을 자제병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거리로 323-27 Tel. (대표)052-255-8588, 052-255-8594, 052-255-8521 Fax. 052-264-0209